

도민안전 침해 ‘생활주변 악성폭력’ 근절

전북경찰청,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 제도 활성화... 6월 25일까지 신고 일반식당 미신고 영업행위 등이 면책 대상... 5월 4일까지 특별단속도 실시

전북경찰청이 도민안전을 침해하는 '생활주변 악성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 선처를 하는 면책 제도를 활성화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경미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특별단속 실효성을 확보해 생활주변 악성폭력 및 조폭 등 악성폭력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면책 대상은 △노래방·주점의 주류 제공, 도우미제공, 동석자배 행위 △일반식당의 미신고 영업행위 △속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행위 △안마방의료법위반 행위 등이 있다. 대상 행위들은 원칙적으로 면책하며 동종전과가 있거나 피해정도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처를 추진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면제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형 불법영업, 불법행위로 인해 중상해 이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또한, 경찰은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을 지난 3월 4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2개월 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의료원장 폭력 △대중교통 폭력 △대학 내 폭력 △체육위험 등이다. 악성폭력 범죄는 보복우려가 예상되고 평소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객, 선주배 등의 관계에 있을 상황이 찾아 신고포기 등 미신고 사

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은 특별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미범도 면책제도로 병행 시행한다. 이후신 전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나 스마트 국민제보앱 등을 통해 생활주변 폭력사범 적발 시 강력히 단속해 처벌하고, 피해자의 경미 불법행위 선처를 통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과 협력하여 체감안전도 제고 및 공동체 치안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중소기업인연합회 중심 전주경제 활성화 노력”

김승수 전주시장, 팔복동 1산단 방문 연합회 소속 대표들과 간담회... 기업 발전방안 논의

중소기업 육성에 나선 전주시가 중소기업 현장에 찾아가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5일 팔복동 제1산업단지를 방문해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 소속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온 중소기업 대표들을 격려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승수시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열쇠는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에 있다"며, "중소기업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동욱 중소기업인연합

회 회장은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요즘이지만 이렇게 시장님과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참 유익한 소통의 시간이 된 것 같다"고 전하면서 "중소기업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전주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5개 분야 18개 사업에 걸쳐 총18.1억원을 지원한다. 마케팅 지원(11개사업/6억), 시설개선 지원(2개사업/4.6억), 경제단체 지원(3개사업/1.4억), 사업화 지원(6억) 등이며 기금 운용을 통해 기업들의 증설투자 비용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용자를 지원, 경영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고부가가치로의 산업구조 재편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탄소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비를 통한 전주제1산업단지 재생사업,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공모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팔복동 첨단벤처단지 내에 스마트공장 배움터(42.5억)를 구축하고 있다. 이어 창업기업들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비창업패키지 사업(6.59억)을 추진함과 동시에, 2019년 창업도약패키지 정부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는 시 소재 중소기업이 주축이 되어 2017년 9월에 중소기업의 지위향상 및 성장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임동욱 (썬유니온시티 대표)를 회장으로 중소기업 300여개 사가 참여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오는 5월 1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48회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학생체전을 앞두고 25일 공무원과 자원단체 회원, 일반시민 등 3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제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려운 환우를 위해 써주세요”

전북대병원 간호사회 병원 발전 후원금 기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모임인 간호사회가 병원발전과 형편이 어려운 환우를 지원하기 위한 발전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달식은 본관 한벽부흥에서 조남천 병원장, 간호사회 회장인 박수정 간호부장 등 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병원에서는 전달식 후 후원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아 간호사회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전북대병원 간호사회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모임으로 상호교류와 친목도모를 하며,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와 나눔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정 간호부장은 "회원들이 십

전북대학교병원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모임인 간호사회가 병원발전과 형편이 어려운 환우를 지원하기 위한 발전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남천 병원장은 "따뜻한 나눔 실천을 위해 병원발전 후원회에 기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름다운 나눔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소년체전 대비 ‘깨끗한 전주’ 조성

시, 공무원·시민 등 참여 경기장 주변 일제대청소 실시

전주시는 오는 5월 1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48회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학생체전을 앞두고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 주변 등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25일 공무원과 자원단체 회원, 일반시민 등 3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제대청소를 실시했다. 시는 대청소를 통해 소년체전이 열릴 경기장 주변과 도심 곳곳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주변 등 정소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나아가 역·터미널과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전주한옥마을, 덕진공원 등 주요 관광지 주변과 시내 곳곳에 적치된 각종 생활쓰레기를 정비했다. 또한 시는 해빙기 도출된 도로·중앙분리대 잔재물(모래 등)을 청소하기 위해 시 보유차량 12대와 민간위탁 차량 6대 등 총 18대의 진공 노면

청소 차량을 동원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에도 소년체전 경기장 주변에 대해서는 적정 청소인력을 배치해 쓰레기 수거체계를 유지하고 가로변 화단 쓰레기 등 깨끗한 도시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대회가 종료된 후에는 기동처리반 투입으로 잔여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를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한옥마을을 비롯한 중점관리구역에 대해 365일 휴무 없는 청소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며, "깨끗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내 집·내 점포 앞 청소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쓰레기 배출 생활화로 선진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이제 안심하세요’

전주시, 저소득층 등 700세대에 가스안전장치 설치 지원

전주시가 가스안전장치 보급을 통해 저소득층과 고령자 가구의 가스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시는 올해 총 3,500만원을 투입해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700가구에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록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가스 타이머록'은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가 차단되는 장치로, 주로 가스에

인지에 음식물이나 빨래 등을 올려놓고 외출하거나 휴식을 취하다 과열로 인한 가스 폭발사고로 이어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가스안전장치다. 지원대상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가스레인지 취급 부주의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소외계층과 고령자가 집단으로 이용하는 경로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타이머록 설치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563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타이머록 설치를 지원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가정 안전을 위한 가스 타이머록 설치사업은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지속적인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덕진구·덕진경찰, 전주 특례시 지정 협력 간담회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양연수)는 25일 덕진경찰서(서장 남기재) 간부들을 초청, 전주 특례시 지정을 비롯한 시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상호협력력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덕진구청 및 덕진경찰서 간부 20여 명이 참석해 시정 최대 현안인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고 더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마쳤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전주는 한 해 1,000만 관광객이 방문하고 생활인구가 100만 명을 초과하는 도시로 늘어

가는 행정수요에 발맞춰 튼튼한 치안 확립이 필요한 지역이다"며,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에 걸맞게 시민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기재 덕진경찰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으며 특례시 지정을 위해 힘을 보태고 덕진구청과 함께 상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지역과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취업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받고 달아나

전직 전북도청 공무원 자수

취업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고 달아나 전직 전북도청 공무원이 한 달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알선수뢰 등 혐의로 모(48)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B모(58)씨로부터 지인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채용이 이뤄지지 않자 A씨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B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7일 영장실질 검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경찰은 범인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달아나 A씨의 수사망을 좁혀갔다. 이에 A씨는 압박감을 버티지 못하고 지난 19일 오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남과 인천 등 전국의 모텔을 돌며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사용처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며 "심리적 압박에 지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품위유지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등 10여개 사유로 지난 1월 A씨를 해임했다고 전했다. /강석훈 기자

전북경찰, 112전문요원 고객만족 친절교육 실시

전북경찰이 '신고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방침으로 112전문요원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상황팀장을 비롯한 전 직원과 각 경찰서 지령요원 등 48명을 대상으로 신고자 감성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공감접수 및 고객만족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친절교육은 외부전문 강사 홍진이 교수를 초빙해 신고자와 공감하는 대화기법, 신고자 특성·대별별 눈높이 대화요령, 감성을 통한 소통 등을 진행했다. 112종합상황실 소속 허근숙 경사는 "교육을 통해 대부분의 신고자는 신고의 비전문가임을 이해하고, 당황하는 신고자를 공감하고 배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112종합상황실장은 "112접수요원의 역량강화는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서 작은 목소리에 진정된 마음으로 대화하는 공감접수"를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을 지켜주고 보듬어주는 믿음직한 경찰, 국민이 공감하는 112가 되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상습폭행 20대 집행유예

시비가 붙은 행인과 식당 손님을 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송경희 판사가 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 40분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호텔 앞에서 일행 3명과 함께 모(19)군의 얼굴 등을 때려 전직 4주의 상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인과 B씨가 시비가 붙자 "그만하고 정신 차려라"고 말했다. 이에 욕설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다음날인 1월 2일 오전 8시경 식당에서 손님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를 연속 여러 사람을 폭행했다"면서 "다만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